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화자의 현재 위치. 집안의 벽,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화자의 정서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가난한 현실. 화자의 지친 모습. ▶ 쉬게 하고

때글은 낡은 무명 샷쨌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때에 절은, 때에 찌든. 화자의 쓸쓸한 내면 세계.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화자의 소박한 소망.

화자의 정서

⇒ 바람벽에 오고가는 외로운 생각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영화의 스크린 기능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회상**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감각어.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 단란한 집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멀리 해변가.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림.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아.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운명론적 사고, 체념적 태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고요하고 쓸쓸한 ⇒ 숙명론적인 체념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 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억누르는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귀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 꽃과 작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박꽃 뱀새 () : 자기 위안과 현실 극복의지.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반복 사용으로 운율 형성
⇒ 나의 자기 위안과 현실 극복의지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애상적, 향토적

주 제 : 가난한 현실에서 오는 체념과 자기 위안

특 징 : 스크린 기법과 같은 회상의 묘사, ‘듯이’의 반복적 사용, 향토적 느낌
해 설

이 작품은 스크린 기능의 흰 바람벽을 통해 영화관 스크린처럼 가난한 늙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린다. 화면에 비친 어머니는 추운 날 차디찬 물에 무며, 배추를 씻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그녀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다. 화자는 쓸쓸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흰 바람벽은 그런 화자를 위로한다. 화자의 쓸쓸한 운명은 하늘이 마련하신 게다. 이것은 화자가 자신의 외롭고 높고 쓸쓸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